

사회

■ 신종플루 거점병원 조선대병원 임시 진료소의 하루

불안감에 밀려드는 환자... 아전병원 방불

일부 환자 “무조건 치료제 달라” 생떼

의료진 ‘번개’ 점심에 화장실 갈 틈도...

“어디가 불편하세요. 콧물은요, 열은 어떠세요. 가래도 있나요. 코막힘은 어떤가요” 대략 10가지의 질문이 몇 초 사이 환자에게 쏟아졌다. 환자의 답변을 모두 전자의무기록에 타이핑하는 의사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기자회견장의 취재기자를 방불케 했다.

29일 오전 11시 조선대병원 신종플루 임시 진료소.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으로 이뤄진 진료팀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오전 내내 물 한잔 마시지 못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다. 얼핏 보기에 화장실도 갈 틈이 없다.

전공의 조흥성씨와 간호사 김명숙씨 등이 진료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이후 밤 12시까지의 응급실 의료진이 이어받아 상시 진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신종플루 진료팀은 내과를 주축으로 꾸려지며, 한 팀이 일주일씩 책임지는 방식으로 순환된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증세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는 가 하면, 무조건 치료제를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환자는 물리는 데 신속한 진료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전공의 조씨 등은 내과 동료들이 잠시 교대해 준 틈을 타 오후 2시에서야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것도 5분 만에 식판을 비우는

‘번개’ 점심이었다.

전공의 조씨는 신종플루 감염 여부와 관련된 질문과 진찰을 한 뒤, 처방을 내린다. 검사전이라도 신종플루로 의심되면 치료제를 처방한다.

또 검사비가 들어가는 선별검사(간이검사·1만5천원)나 확진검사(15만원)는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뒤 실시한다. 선별검사는 15분 정도면 검사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양성일 경우는 치료제를 처방하지만 음성이더라도 의사가 보기에 심각하다

고 판단되면 역시 치료제를 처방한다.

진료 중 가장 힘든 때는 환자가 무턱대고 치료제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다.

조씨는 “신종플루가 아니라도 확산이 서면 기본적으로 치료제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다짜고짜 치료제부터 처방해달라고 우기는데 환자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승강이를 할 수도 없고, 환자의 공포감이 클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쩔 수 없이 처방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신종플루는 감염되더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이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그

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정부와 언론이 강조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시 진료소 이곳저곳에서는 기침 소리가 이어졌다. 상당수 환자가 고위험군인 어린 자녀나 청소년을 동반한 부모들이었고, 더러 “감기 같은데 혹시나 하는 걱정에서 왔다”는 성인들도 있었다.

조선대병원 신종플루 진료소의 경우 지난 주에는 하루 20~30명 정도의 환자들이 찾았으나 이번 주 들어서는 매일 100~150명 가량의 환자가 몰리고 있다.

이중환자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신종플루 진료소 전담의사 조흥성씨가 고열로 인해 부모와 함께 29일 오전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부터 증세를 듣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단체헌혈 금감...혈액수급 ‘비상’

투병 환자들 불안감

신종플루로 단체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플루 재확산 이후 헌혈자 수가 급감하면서 혈액 재고량도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혈액 보유량은 662유니트(unit)로 1.5일분에 그치고 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5일분(1천630유니트)이다. 혈액량별로는 O형이 0.7일분(73유니트)에 불과해 가장 심각하고 A형은 1일분(149유니트)이다. B형과 AB형은 각각 3일분(330유니트·110유니트)을 보유

하고 있어 사정이 그나마 괜찮다. 가장 큰 문제는 단체헌혈의 급감이다. 헌혈과 신종플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헌혈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으로 투병중인 환자들은 자칫 필요한 혈소판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까봐 불안감에 떨고 있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전 손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신종플루에 대한 감시체계를 세워놓고 있어 안심하고 헌혈을 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직장·학교·버스 ‘기침하면 죄인’

신종플루 민심 흉물

신종플루 대유행은 시민들의 일상도 바꿔놓고 있다. 직장이나 학교, 출퇴근 지하철, 버스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상당수 업체는 직원이 감염됐을 때 해당 부서가 모두 휴가를 내거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환자가 나오더라도 휴가를 쓰게 해 안전지대까지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회사 분위기가 흉물

하다는 게 직장인들의 전언이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이모(32·광주 남구 진월동)씨는 “며칠 전 한 동료가 신종플루에 감염돼 10여 일간 쉼 뒤 출근했는데, 옆에 가는 것조차 꺼린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에는 ‘기침하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태도가 예민해졌다. 담양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이모(33)씨는 “버스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했다 하면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고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손잡이를 잡는 것도 꺼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940) 김장두



일본인 금품 훔친 10대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29일 선교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일본인의 숙소에서 금품을 훔친 이모(17)양을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이양은 지난달 23일 오후 남구 모교회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한국에 온 일본인 A(여·27)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가방 안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 3장 등 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신 과담 유포자 잡고보니 고교생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9일 신종플루 백신과 관련된 과담을 지어내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포한 고교생 2명을 검거. ○서울 모 고교 1학년 A군은 23일 국내 유명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학생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임상실험 대상을 노인에서 중·고교생으로 바꾼 것이며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하라고 동의서가 오면 접종을 거부하지는 등의 과담을 처음 게시. ○또 이 글을 본 서울 모 여고 2학년 B양은 24일 내용을 다시 정리해 “신종플루를 맞으면 죽는다. 예방 접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친구 30여명에게 보냈고, 이후 신종플루 백신 과담은 급격히 확산됐다고 경찰은 설명. /연합뉴스

불법주차 사망사고 화물차주 어찌나...

경찰, 선례 없어 범 적용 고민

자동차전용도로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화물차주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두고 고민에 빠졌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55분께 북구 동림나들목 인근 자동차전용도로 안전지대에 화물차를 불법 주차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지모(52)씨를 아직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들고 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으로 처벌한 선례가 없어 고민 중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더라도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기소를 면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법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왔다. 보통 운전행위만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 주차한 뒤 문을 닫고 나오다 과정까지도 보기 때문에 경찰이 지씨의 주차된 화물차가 운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지가 입건 결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다음주 초까지 검찰과 협의해 지씨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80대 노파 성폭행 하려다 살해 이웃 60대 ‘짐승男’ 검거

나주경찰, 살인혐의 조사

나주경찰은 29일 이웃에 사는 80대 노파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김모(66)씨를 살인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4시30분께 나주시 A(여·88)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새벽 이웃에 사는 A씨가 자신의 집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는데 잠시 재워달라”며 집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김씨의 모자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김씨를 불잡았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이랜드시위 중 경찰폭행 민노총 간부에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9일 지난 2007년 8월 순천에서 이랜드 자본 규탄 시위 도중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본부 간부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마시자! 알칼리 이온 시스템**

골목 건강을 위한 알칼리 이온 시스템  
피부 건강을 위한 알칼리 이온 시스템

특/기/세/일 695,000 원

2주절반 무조건환원 보장 광주지사 1644-1210

(주)동원과학 (주)이오니아

**아이엘리시아**

출산차, 파르벤, 새이나라 경춘 코일 및 정사 (300명 전)

소교(비밀) : 1인씩, 12인씩, 24인씩, 30인씩  
대교(비밀) : 40인씩, 80인씩, 100인씩

082-671-1199